

## C-10 급속 교정성 맹출에 의한 임상적 치관 연장술 (Clinical crown lengthening by rapid forced eruption)

김찬진\* · 문혜성 · 황승환 · 노기성 · 김형성 · 강경동 · 김병옥 · 한경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임상 치관 연장술은 (1)수복물의 변연을 위치시키기 위한 건전 치질의 노출, (2)유지력 증대를 위한 임상적 치관의 증가, (3)새로운 치조골과 새로운 수복물 사이에서 생물학적 폭경의 확보등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술식이다.

생물학적 폭이란 접합상피의 폭과 결합조직 폭을 합한 2.04mm를 일컫는 데, 해당치아의 수복치료를 위해서는 접합상피의 부착을 위해 1mm, 결합조직의 부착을 위해 1mm, 수복물을 위해 1mm의 치질이 있어야 하므로 치조정으로부터 노출시키고자 하는 치질이 최소한 3mm이상 존재하여야 한다.

치관연장술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술식으로는 (1)치은 절제술 (2)골성형술을 동반한 근단 변위 판막술 (3)교정성 치아 맹출법 (지연 맹출법, 급속 맹출법)등이 있다.

치은 절제술은 충분한 부착치은이 있으며 치조정으로부터 노출시키고자 하는 치질의 경계까지 3mm이상의 치질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되며, 골성형술을 동반한 근단변위 판막술은 치조정으로부터 3mm이상의 치질이 존재하지 않거나 치조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주로 여러치아를 대상으로 하며 수술로 인하여 주변지지 조직의 소실과 부착상실에 의한 비심미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지연맹출법은 중등도의 교정력이 사용되고 고정성 교정장치를 필요로 하는 데, 전체 부착기구가 치아와 함께 이동되므로 치아가 의도하는 위치까지 도달되어 고정된 후 전층판막을 거상시켜 해당치아의 건전 치질을 노출시키기 위한 골절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급속맹출법은 지연 맹출법보다 더 많은 교정력이 필요하고 골연상 섬유조직의 절단을 위해 7-10일 간격으로 섬유절단술이 요구된다.

본 증례에서는 섬유절단술을 동반한 치아의 급속맹출을 이용한 치관연장술을 시술하여 임상적 및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